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12. 30.(화) 17:00
(지 면) 2025. 12. 31.(수) 조간

차가운 겨울, 연탄처럼 뜨거운 연대로 극복! 사회연대경제 민관협력 현장방문

- 윤호중 장관, 행안부 전담조직 출범 계기로 관련 현장 잇달아 방문
- 서울역 인근 동자동에서 사회연대경제 관계자 간담회 열고 쪽방 방문, 과천 꿀벌마을서는 연탄 1만 장 기증 및 연탄배달 봉사활동 펼쳐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12월 30일(화) 윤호중 장관이 서울역 인근 사회연대경제 현장과 경기도 과천시 꿀벌마을을 방문했다고 밝혔다.

<서울 동자동 사회연대경제 현장 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 개최>

□ 먼저, 윤 장관은 마을 주민을 위한 공유식당, 마을장례, 법률상담, 주민교육 등을 운영 중인 주민단체 ‘동자동사랑방’과 주민들이 직접 설립해 마을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 ‘사랑방주민협동회’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.

○ 이날 간담회에서 윤호중 장관은 ‘동자동사랑방’과 ‘사랑방주민협동회’의 주요 활동현황을 공유하고,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비롯해 복지·주거·의료 분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.

※ (동자동사랑방) '07년 동자동 쪽방에서 발족해 '09년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 단체, 800여 명 쪽방주민 대상 주거권 보장과 복지 증진 등 주민 생활개선 활동 중

※ (사랑방주민협동회) '11년 창립 이후 280여 명 조합원이 4억 원 이상 출자금을 적립해 소액대출 중심의 공제사업 운영, 누적 대출 실적은 약 5,600건, 13억 원(상환율 92%) 상당

- 윤호중 장관은 간담회에 이어 동자동 쪽방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, 겨울철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을 직접 살폈다.
- 윤 장관은 간담회에서, “동자동 주민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사회연대 경제 방식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공동체를 지켜왔고, 이러한 활동은 사회연대경제의 가치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 모범사례”라며,
- “행정안전부도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‘기본사회’ 구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 라고 말했다.

<과천시 꿀벌마을 방문해 연탄 나눔 봉사활동 진행>

- 이어서, 윤 장관은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꿀벌마을을 방문해 연탄 기증 및 배달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해 주민들의 겨울철 주거·난방 여건을 점검했다.
- ※ (꿀벌마을) 415세대 587명 거주(저소득주민 60가구, 고령자 118세대)
-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매년 연탄 기증과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, 올해는 사회연대경제국 출범을 계기로 민관이 함께하는 ‘사랑의 연탄나눔’ 행사를 준비했다.
- 이날 봉사활동은 연탄 1만 장*을 연탄은행에 기증하는 전달식을 시작으로, 80여 명**의 참석자가 15가구에 총 3천 장의 연탄을 배달하였다.
- * 행정안전부·새마을금고 공동으로 마련
- ** 행정안전부 직원·청년인턴·행복드림봉사단, 새마을금고 임직원, 전국마을기업협회 임원단, 경기도 공무원 및 사회연대경제 기업·지원기관 관계자 등
- 아울러 봉사에 참여한 희망동지협동조합은 비닐하우스 구조 특성상 한파와 안전에 취약한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전등·문 교체, 안전바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.

- 윤호중 장관은 “사회연대경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이면서 동시에 참여와 연대, 혁신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전략”이라며,
- “행정안전부는 전담조직 신설을 계기로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, 지역소멸대응 및 기본사회 실현, 나아가 국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국민주권정부 구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자치혁신실 자치행정과	책임자	과 장	박성민 (044-205-3101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식 (044-205-3104)
	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제도과	책임자	과 장	권영우 (044-205-3572)
		담당자	사무관	김혜정 (044-205-3579)

